

지역 소식 통

정읍시, 책과 가을 감성  
‘야외밤도서관’ 운영

정읍시가 오는 25일 중앙도서관 야외 독서정원에서 ‘책과 가을 감성’을 주제로 가을밤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행사는 △리딩존 △놀이존 △공연존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오후 5시~9시까지 진행되는 리딩존은 전자기기를 잠시 맡기고 독서에만 몰입하는 ‘디지털 디톡스’ 공간으로 꾸며진다.

같은 시간 놀이존에서는 어린이 가족을 위한 패밀리 별문쇼와 함께 ‘북크닉’ 공간이 마련돼 즐거움을 더한다. ‘공연존’에서는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첼로 공연과 가을밤 낭독회가 이어진다.

이번 행사의 백미는 ‘첼로 가을의 정원’ 초청 공연이다. 김대연 첼리스트와 정상욱 피아니스트가 선율로 가을을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시티스테이 투어 리턴즈’ 호평 속 마무리

참가자들의 손에 최신 스마트폰 대신 필름카메라가 들려있다. 정읍의 관광명소와 도시재생시설을 아날로그 감성으로 담아내는 특별한 여행, 정읍 시티스테이 투어 리턴즈가 지난 18일과 19일 참가자들의 뜨거운 호응 속에 열렸다.

정읍시와 정읍정삼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 주관으로 열린 이번 투어는 도시재생 거점시설의 지속 운영과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참가자들은 지급된 필름카메라로 정읍 곳곳을 자유롭게 촬영했으며, 그 결과물은 온라인 플랫폼에 올렸을 때를 통해 실시간 공유돼 큰 호응을 얻었다.

투어 첫날 참가자들은 기악저장소에서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원도심과 역사문화유산을 탐방하고 슬문화관에서 도자기 체험을 했다. 저녁에는 정읍의 밤·감성파티를 통해 서로 소통하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삼성 스마트허브단지, 고창산단에 착공

총사업비 3500억원 규모 · 동부건설 시공... 내달 10일

전북 고창군에 들어서는 삼성전자 스마트허브단지(물류센터)가 오는 11월10일 오전 10시30분, 고창산업단지 내 삼성전자 부지에서 착공식을 연다.

이번 사업은 고창군과의 투자협약 당시 3000억원 규모로 계획됐으나, 실시시설을 많은 무영건축의 최종 설계와 시공사인 동부건설의 시공 확정 과정에서 총사업비 350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삼성전자는 이번 투자를 통해 남부지역의 원활한 물류·유통체계 구축을 목표로 호남권 대규모의 첨단 물류센

터를 건립할 예정이다.

착공식에는 심덕섭 고창군수를 비롯해 삼성전자 임원급 관계자, 고창출신 국회의원,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도의원, 고창군의회 군의원 및 지역기관·사회단체장과 주민 등 약 10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스마트허브단지는 18만625㎡(축구장 26개 규모) 부지에 건립되며, 자동화 기술과 친환경 설비가 결합된 첨단 물류센터로 조성된다. 2027년 완공을 목표로, 완공 후에는 500여 명의 직·간접 고용과 전북 서남권 산업 생태계 활성화가 기대된다.

특히 삼성전자가 계획하는 고창 스마트허브단지는 자동화를 기본으로, 각 장비의 연동이나 유지보수 등이 중요한 포인트다. 자연스럽게 로봇 컨베이어 등 자동화 장비 기업들의 연쇄 투자와 이전까지 기대되고 있다.

또한 공사기간 시공사와 협력업체를 통한 ‘고창 관내 소비 확대’도 기대되고 있다. 수백명에 달하는 건설 인력과 장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고창 관내 숙박시설·식당·주유소 등 지역 업체를 이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지역에서 벌어들인 돈이 다시 지역 안에서 순환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지역경제에 전반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고창=김영식 기자

천년 고도 ‘고사부리성’ · 첫 합성의 현장 ‘말목장터’ 점검

이학수 정읍시장, 현장 중심 적극행정... “역사 복원 · 시민참여형 문화공간 조성해야”

이학수 정읍시장은 지난 20일 고사부리성 복원 및 정비공사 현장과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 예정지를 차례로 방문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사업의 실효성과 시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현장 중심 적극행정을 펼쳤다.

먼저 고사부리성 복원현장을 찾은 이학수 시장은 “단순한 성벽 복원에 그치지 않고 성터를 정비해 시설물과 체험 콘텐츠를 결합한 복합형 역사공간으로 발전시킬 것”을 주문했다.

또한, “성벽의 형태가 시민의 눈에 명확히 보이도록 가시성을 확보하기 위해 잡목 제거, 소나무 전지작업 등 주변을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성벽 복원 성터 정비, 잡목 제거 사업을 연계해 국비를 동시에 신청하도록 하고 ‘성벽 걷기 행사’ 등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활용 프로그램



램을 적극 검토하도록 강조했다.

이학수 시장은 “성벽 높이와 망루 등 구조물 복원 방향은 역사적 고증을 토대로 신중히 결정하고 천년의 역사가 시민 곁에서 살아 숨 쉬는 공간이 되도록 장기적 복원 비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방문한 말목장터 문화광장 조성지에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현장 행정이 곧 적극행정의 출발점이라며 동화기념사업회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사업의 추진방향을 명확히 정립할 것”을 지시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의회, 논콩 피해 지역 전량 구매 등 지원 대책 정부에 촉구 건의

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21일 제366회 임시회를 통해 김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논콩 피해에 따른 재해지역 지정 및 생산 논콩 전량구매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논콩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피해 농가의 어려움에 대한 실질적 지원대책 마련을 정부에 촉구하기 위한 것.

특히 건의안 내용으로 △부안군을 비롯한 전북 지역의 논콩 피해 실태를 면밀히 조사하고 신속히 재해지역으



로 지정할 것 △피해 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해 생산된 논콩을 전량 구매하고 농가소득 보전 대책을 즉시 마련할 것 △기후변화에 대응한 배수시설 개선

및 재해예방 등 중장기적 개선대책을 수립할 것 등을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박병래 의장은 건의안을 통해 논콩 피해로 상심이 큰 농민들의 마음을 깊이 공감한다며, 정부 정책만 믿고 버 대신 논콩을 심었다가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피해 농가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해결 방안 등 현실적인 지원과 대책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배움의 즐거움, 축제로 만난다

제18회 정읍 평생학습축제, 25일 개막... 2일간 문화공원 일대

시민들이 한 해 동안 갈고닦은 배움의 성과를 나누는 ‘제18회 정읍 평생학습축제’가 오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정읍시문화공원 일대에서 열린다. 올해 축제는 다채로운 무대 공연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지난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이후 매년 열리고 있는 이 축제는 평생학습동아리, 유관기관·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시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배움의 결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다. 행사는 25일 오전 10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15개 팀이 준비한 아름다운 연주와 무용 등 다채로운 무대 발표가 펼쳐진다.

이틀간 운영되는 홍보·체험관에서는 무지개동아리 등 27개 팀이 참여해

방문객들을 맞는다. 체험부스에서는 △꽃비구니 만들기 △유각주 제작 △방향제·키링 만들기 △가훈 쓰기 △천연화장품 만들기 △전통주·커피 시음 △먹거리·드론 체험 △파우치·팔찌 만들기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가득하다. 특히 세계의상을 입어보는 문화 체험도 마련돼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학수 시장은 “배움을 통한 성과를 선보이는 축제에 많은 시민이 참여하여 다양한 체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축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나 인재양성과 평생교육팀(063-539-558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제18회 해양보호구역 대회’ 22~23일 개최

-해양보호구역 이해관계자 협력 강화 및 지속가능한 보전 방안 논의  
고창군이 22~23일까지 웰파크호텔과 고창갯벌 일원에서 ‘제18회 해양보호구역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와 고창군 해양환경공단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하며, 전국 해양보호구역 지자체, 유관기관·단체, 전문가, 지역주민 등 2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해양보호구역 관리 성과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정책 협력과 지역사회 참여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2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2026년도 해양보호구역 정책 방향 소개와 해양보호구역 토론회를 통해 해양보호구역 관리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

하는 시간이 될 전망이다.

또 참가자들이 직접 고창갯벌의 생태를 체험하는 ‘고창갯벌 현장투어’가 진행된다. 현장투어는 4개 세션(갯벌 식물원 영상작품 탐방, 세계유산 고창갯벌 철새 탐조, 복원지 사운드와킹, 습지보호 정책 탐방)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23일에는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 총회’와 주제별 세미나가 열린다. 총회에서는 지역센터 간 정보 교류와 공동 협력사업 발굴 방안이 논의된다.

세미나에서는 △갯벌 복원 워크숍 △세계유산 OUV 모니터링 △해양보호구역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등 실질적 현장 중심의 논의가 이어진다. /고창=김영식 기자

부안군 향교지구, ‘섬바깥 목련정원’ 개원

부안군은 최근 향교지구 주민들과 지역정원사 모임인 ‘부안바깥정원사’가 함께 조성한 ‘섬바깥 목련정원’의 개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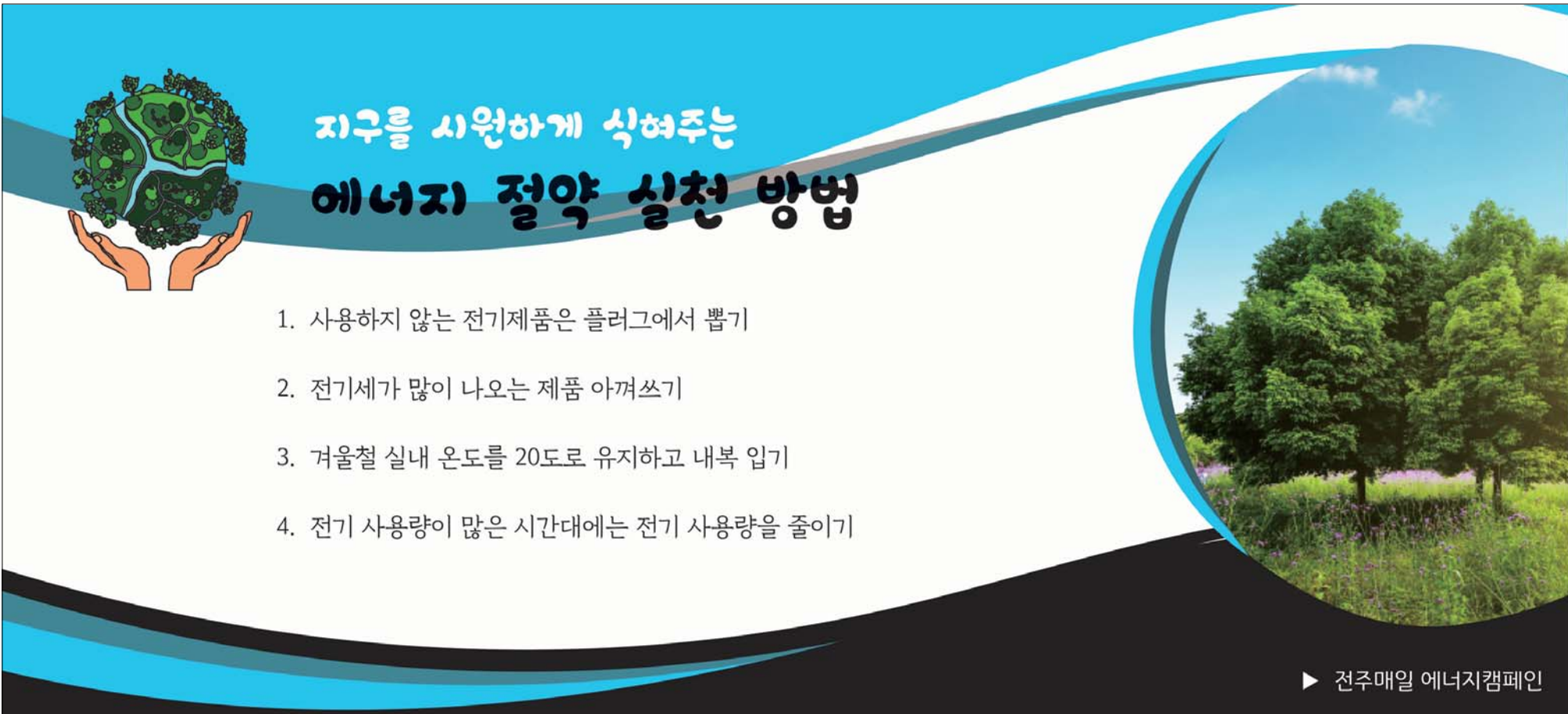
‘섬바깥 목련정원’은 향교지구 마을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향교지구 청우평생학습관 옆 공터에 조성된 마을정원으로 행정과 주민 지역단체가 마을의 유류 공간을 재생한 대표적인 주민참여형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정원의 명칭은 과거 이 일대를 부안성 서문 밖이라 불렀던 옛 지명 ‘섬바깥’과, 오래전부터 이곳을 지켜온 목련나무를 더해 주민들이 직접 명명한 것으로 지역의 역사와 정체성,

그리고 공동체의 정서를 담은 이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번 정원 조성은 부안군과 부안바깥정원사가 함께 기획·설계 및 식재를 결정하여, 향교지구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3차 협력 구조로 진행되었는데, 기획 단계에서부터 주민 의견을 반영해 공간 배치와 식재 수종을 선정했고 조성 과정에서도 주민들이 함께 식재·정리·꾸미기에 참여하며 ‘내 손으로 가꾼 우리 마을정원’이라는 성취감을 나누었다.

정원에는 50여종 이상의 수목이 식재되어 사계절의 변화를 즐길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부안=김석진 기자



##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